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여름날에 있었던 일

시모타케 지요코

● 전시 중의 생활

나는 1921 년에 히로시마현 야마가타군 도노가촌 (후의 가케초, 현재의 야키 오타초)에서 태어났습니다.

1940 년인가 1942 년경부터 부모 슬하를 떠나 쓰쓰가촌 (현재의 야키 오타초)에 있던 엄격하기로 유명한 예의범절 선생님 댁에서 살면서 다도와 꽃꽂이, 그 밖의 예의범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후의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후,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쓰쓰가촌의 교육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내가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강사료를 주었기 때문에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노가촌 촌장님의 조카뻘이 되는 가와모토 히사시와 알게 되어 1944 년 5 월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노가촌의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히로시마시 히지야마 혼마치의 쓰루미바시다리의 가까이에서 시부모님(시아버지:가메사부로, 시어머니:세키요)과 함께 넷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계방을 경영하고 있었습디다만 한 마을에 같은 직종의 가게가 두 군데나 필요 없다고 하여 남편은 외지로 일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전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전업주부도 한 집에 2 명이나 필요 없다고 하여 여성도 일해야 하는 시대였으므로 나도 결혼한 다음 달부터 시아버지가 근무하던 가스미초의 육군무기창고에서 근무했습니다.

● 원폭투하 전

시집의 고향도 도노가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 월 3 일부터 도노가촌에 다녀 올 예정이었습디다만, 그날 아침이 되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네가 먼저 다녀오너라.나는 추석 때 한 열흘 다녀올테니까」하셔서 내가 먼저 8 월 3 일부터 5 일까지 도노가촌의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쓰루미바시다리를 건너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뒤쫓아와 상태가 좋은 양산을 내밀며 히로시마에 가지고 있으면 공습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친정에 맡겨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안부 전하고, 약속한 날 (5 일) 꼭 돌아 오너라」라고 하신 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차마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 했습니다. 친정에 가면 조금이라도 더 있다 오고 싶은 마음에 5 일 밤 마지막 버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 하니 승차거부를 당해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지 않은 것을 알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너희 시부모님께 미안하다」라며 엄격하게 꾸짖으며 시집에 내일은 반드시

지요코를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의 전보를 쳤습니다.

●8월 6일부터 8월 9일

다음날 (8월 6일) , 약속한 날을 넘겼으니 아침 일찍 출발하면 좋을 것을, 그날도 느긋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원폭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 시 15 분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빛이 번쩍했다는 느낌 후, 지축을 뒤흔드는 것 같은 매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후 『히로시마시』라는 글자가 쓰인 찢어지기도 하고 타기도 한 종잇조각이 많이 날아왔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히로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역시 히로시마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히로시마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여자나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여 먼저 아버지가 히로시마 시내에 상황을 보러 걸어서 갔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살고 있던 히지야마 혼마치 집에 가보니 모든 것이 타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불탄 자리에 무기고 기숙사에 있다고 하는 팻말이 있어서 아버지는 그리로 가서 남편과 시부모님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큰 화상으로 피로워하며 거의 숨이 넘어가게 생겼더랍니다. 아버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한 후, 히가시 하쿠시마초에 살던 삼촌 덕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삼촌 덕은 완전히 무너져 고이 근처에 피난 가 있었습니다. 학도동원으로 건물정리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촌 여동생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쪽저쪽 돌아다니시고서 도노가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무기고 기숙사에 있다는 말을 아버지께 들은 나는 8월 8일 날 아침에 버스와 기차(가베선)를 갈아타고 히로시마 시내에 갔습니다. 도중의 가베역 앞 광장에는 당장에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부상자들이 많이 눕혀져 있었습니다. 베개 옆에는 통조림이 1개 놓여 있을 뿐. 가족을 찾으려 온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름을 불러 봅시다만 대답할 기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부상자를 본 나는 가족들이 걱정되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는 미타키역 근처에서 멈춘 채 승객들을 내리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매실 장아찌와 쌀 등 친정에서 받아 온 양식을 짚어지고 무기고 기숙사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주위가 불타서 허허벌판이 되어 버려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모르겠고, 목표로 삼으려고 했던 건물도 눈에 띄지 않아 그저 그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길을 묻기 위해 가까이 가 봤더니 시체를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다리 위 건길 근처이건 눈 가운데건 상관없이 여기저기에서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태우는 광경을 보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냄새가 역겹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마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9 일 밤중 3 시에 마침내 겨우 무기고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었으나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시신이 아직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왼쪽이 떨어졌을 때, 발에 나와 있어서 거의 전신에 화상을 입고 턱과 가슴이 타 없어져 버려 보기에다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 의하면 그때까지 들리던 신음소리가 안 들려서 촛불을 켜 보았더니 숨이 끊어져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가 나무상자로 관을 짜 그 안에 시어머니를 모신 후 고구마밭에서 태웠습니다.

● 남편의 죽음

남편은 집 안에 있어서 화상도 전혀 입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부상도 없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어머니를 살리러 밖으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8 월 15 일 아침 5 시에 잠이 깼습니다. 남편이 「아직 안 일어나도 되잖아」라고 했습니다만 시어머니의 7 일제였기 때문에 경단이라도 만들어서 바치려고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먹을 죽도 준비하고서 남편에게 밥 먹자고 깨우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 시아버지와 함께 자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 남편은 숨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주검에 파리가 달라붙기 시작하자 조금이라도 빨리 화장하기 위해서 15 일에 죽었습니다만 14 일에 죽은 것으로 사망신고를 내고 그날 중으로 화장했습니다. 그때도 시아버지가 관을 짜 주셔서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화장할 때 불을 붙인 것이 매우 괴로웠던 듯 이번에는 내게 불을 붙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까지 숨을 쉬고 있었던 사람에게 불을 붙인다는 것은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장하여야 하니까 불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불이 타기 시작하자 도저히 옆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해도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어서 돌아왔지만 여기저기서 시체를 태우고 있어서 아직 지면이 뜨거워 손바닥과 무릎,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뼈를 주우러 갔을 때 바로 머리 위를 적기가 날고 있었는데도 경계경보가 울리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한참 동안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 자해용 청산가리

무기고에서는 여자직원 전원에게 청산가리를 나눠 주었습니다. 미국

군인들에게 욕을 당하기라도 하면 창피한 일이므로 그때에는 이것을 먹으라고 해서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간인 것 같아서 그 청산가리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관청에 사망신고를 내려 간 사이 청산가리를 입에 넣으려고 물까지 마셨습니다만 그때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나까지 죽어 있으면 시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시아버지를 간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청산가리를 마시려고 하던 것을 그만뒀습니다. 나는 길었던 머리를 잘라 「미안해요, 여보. 내가 함께 갈 수 없으니까 이건 내 마음이에요.」라고 하며 남편의 주검과 함께 태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청산가리를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노가촌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 청산가리를 소중히 가지고 있었더니, 보이는 데 그런 것이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남동생이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타는 냄새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시아버지는 무기고에 있을 때에 피폭하여 등에 큰 화상 입었습니다. 그 때문에 잘 때도 언제나 엎드려서 잤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 시아버지와 함께 도노가촌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8 월 25 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아직 24 살밖에 안 되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까지 잇따라 잃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을 지고 3 사람의 유골을 고향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차마 목숨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도노가촌으로

겨우 9 월 6 일이 되어서야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유골을 가지고 도노가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친척덕에서 장례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시기의 나는 매우 여위어 있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형제들 모두가 지켜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형제라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식욕이 없어도 모두가 먹으면 덩달아 같이 먹고는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 두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노가촌에 돌아오고나서도 몇 번인가 히로시마 시내에 아버지와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어느 날 히로시마 시내에서 외국인 포로였던 사람에게 쫓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녀 매우 지쳐 있었고 또 마쿠라자키 태풍 후라서 길도 아닌 곳을 지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달려서 도망쳤습니다만 너무 무서웠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재혼

저는 1957 년에 재혼했습니다. 아이가 3 명 있는 분이었는데 막내 사내아이가 2 살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아이를 길러 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나보니 너무나도 귀여워 자신은 이미 아이는 단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기르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상태

지금까지, 건강 면에서 불안한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뺄 때는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근처 치과에 가면 먼저 내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7 년 정도 전 (2001 년)에는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에도 전이되어 장을 50 센티 정도 잘라내는 대기술이었습니다. 난소암은 낫기 어려운 병인데 그 위에 장에까지 전이되었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난소암에 걸렸을 때, 음식 맛이 쓰게 느껴졌었습니다만, 최근 또다시 쓰게 느껴지기 시작했으므로 병원에 갔더니 장폐색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피폭해서

나는 왼쪽으로 직접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파리가 손이나 다리, 등등, 몸 여기저기에 알을 낳아 피부 속에서 구더기가 가득 나왔습니다. 그때는 매우 아팠으며 마치 등에같은 큰 벌에 쏘인 것 같았습니다. 그 자국이 지금도 등에 가득해 나는 온천 같은 공동목욕탕에 가는 것이 싫습니다.

병원 선생님께도 등을 보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피폭한 탓이라고 대답하면 피폭 당시 등을 내놓고 있었느냐고 물으시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정말 귀중하고 전쟁 따위는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안에서도 다툼이 있으면 좋을 것 없으므로 다툼 없는 화목한 집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